

“김수지가 해냈다”...한국 다이빙 사상 첫 메달

광주세계수영대회 여자 1m 스프링보드 동메달
박태환 이어 두 번째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



여자 다이빙 국가대표 김수지(21·울산시청)가 대형사고를 쳤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선수

베이컨(262.00점)의 뒤를 이었다. 한국 다이빙사에 길이 남을 쾌거다. 김수지는 최고의 선수들이 몰리는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목에 건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됐다. 경영으로 범위를 넓혀도 박태환(30·인천시청)에 이어 두 번째 메달리스트다. 한국 수영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당시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금메달에 이어 8년 만에 세계 무대 메달권 진입에 성공했다. 전날 예선을 8위로 통과한 김수지는 결승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깜짝 이변을 연출했다. 김수지는 1차시기부터 55.20점을 쟁겨 3위로 레이스를 시작했다. 2차

시기에서는 난이도 2.6점짜리 기술을 깔끔하게 소화하며 57.20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메달권 경쟁자인 장아니(중국)는 크게 흔들렸다. 2차 시기 도약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39.00점에 그쳤다. 장아니는 3차 시기에서도 44.85점에 그쳤다. 김수지는 순항을 계속했다. 뒤로 한 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 3차 시기에서는 심판 7명으로부터 모두 7.0점을 이끌어 냈다. 총점 160.70점으로 2위를 유지했다. 4차 시기에서 49.20점을 얻은 뒤에는 만족스러운 듯 환한 미소를 보였다. 마지막 5차 시기까지 김수지는 짐작할 수 없지 않았다. 47.30점을 보태 일정을 모두 마쳤다. 남은 선수들의 결과와 초조하게 지켜보던 김수지는 메달이 확정되자 그제야 밝은 미소를 지었다. 김수지는 “처음으로 이렇게 큰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 너무 기쁘다.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스러워했다. 경영 김서영(25·경북도청·우리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수지가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의 첸웨이, 은메달을 차지한 사라 베이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그룹) 외에는 이렇다 할 스타가 없었던 이번 대회에서 김수지의 깜짝 등장은 흥행 몰이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항서 감독, 9월 스승 히딩크 감독과 첫 대결

2002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4강 신화를 함께 일궈낸 거스 히딩크(73·네덜란드) 감독과 박항서(60) 감독이 9월 중국에서 첫 사제 대결을 갖는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은 13일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이 9월 중국에서 스승 히딩크 감독과 대결을 펼친다”고 보도했다. 경기는 9월8일 중국에서 열린다. 히딩크 감독과 박항서 감독은 한일 월드컵에서 각각 감독과 수석코치로 한국 4강 신화의 중심에 섰다. 특히 박 감독은 직설적인 스타일의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 수행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의 감독으로 맞대결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매체는 “히딩크 감독은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에 올린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엄청난 위업을 달성했다”며 “박 감독은 히딩크 감독의 도우미였다”고 소개했다.

여자수구 첫 국가대표, 첫 경기서 헝가리에 0-64 완패

개최국 자격 남녀 출전권 획득...5월 말 대표팀 꾸러



14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대한민국-헝가리 예선경기, 한국 대표팀이 입수를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여자 수구 대표팀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출전의 역사를 썼다. 결과는 완패였다. 대표팀은 14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여자 수구 B조 조별예선 1차전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0-64(0-16 0-18 0-16 0-14)로 완패했다. 예상된 대패였다. 한국 여자 수구는 출전만으로도 역사다. 한국 남녀 수구가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남녀 수구 출전권을 획득했다.

여자 수구는 대표팀이 구성된 것조차 처음이다. 5월 말에야 13명의 여자 수구 국가대표가 선발돼 세계선수권대회를 40여일 앞둔 6월2일에야 훈련을 시작했다. 반면 헝가리는 2017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차지한 강호다. 헝가리는 역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땀다. 이제 막 결음마를 땀 한국 대표팀과는 전력차가 무척 컸다. 그래서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는 ‘한 골’이었다. 하지만 첫 경기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력차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헝가

리 골문 근처로도 가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헝가리 선수들은 우리나라 골문을 마구 두들겼다. 1피리어드에만 16골을 내줬고, 2피리어드에도 18점을 더 내줬다. 한국의 득점은 0이었다. 그래도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든 헝가리 선수들에게 골을 뺏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뼈아픈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대표팀에 관중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1피리어드 초반 골키퍼이자 주장인 오히지(전남수영연맹)가 헝가리의 골을 막아냈다. 1피리어드 4분44초에는 송에서(서울체고)가 헝가리의 철통같은 수비를 뚫고 길게 샷을 날렸지만 헝가리 골키퍼에 막혔다. 2피리어드 시작 후에는 이정은(작전여고)이 몸싸움 끝에 먼저 볼 소유권을 가져오기도 했다. 길게 공격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체력적으로도 열세인 한국은 3피리어드 이후에는 더욱 힘겨워했다. 패스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3피리어드에도 한 골도 성공하지 못한채 17골을 더 헌납했다. 한국은 4피리어드에서 움직임이 한층 둔해졌고 헝가리 진영으로 가지 못했다. 헝가리는 4피리어드에 -골을 더 넣었다. 오히지가 4분5초, 5분23초 등 두 차례 헝가리의 골을 막아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안겼다.

女 오픈워터 임다연·정하은 나란히 완주

한국 여자 선수 최초

한국 여자 오픈워터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임다연(27·경남체육회)과 정하은(26·안양시청)이 첫 레이스를 무사히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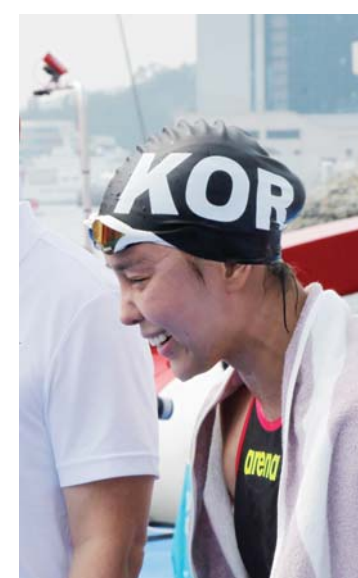
두 선수는 14일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10km 경기에 출전했다.

임다연은 2시간7분50초90으로 64명의 선수 중 53위에 올랐다. 정하은은 2시간9분36초80으로 55위에 자리했다.

경영 선수로 활동하다가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오픈워터로 종목을 바꾼 임다연과 정하은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당당히 겨뤘다. 변수가 많은 야외에서의 수영이 그리 익숙하지 않은 탓에 기록은 좋지 않았으나 완주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중국의 신신이 1시간5분47초20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위에 그쳤던 신신은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다. 내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 수영 10km 종목에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서 첫 출전한 임다연(경상남도체육회·26)선수가 14일 경기를 마치고 활짝 웃고 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획득했다. 뉴스스

영매체 “새 얼굴 합류 해도 손흥민입지 탄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7)이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해도 입지는 변함없이 탄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14일(한국시간) 2019-2020시즌 토트넘의 예상 베스트11을 전망했다.

손흥민은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려 4-2-3-1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날개에 자리했다.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 텔리 알리 등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다.

이번 라인업에는 새롭게 합류한 선수나 토트넘 이적설이 돌고 있는 선수들도 포함됐다.

매체는 이적설이 나오는 폴럼의 라이언 세세농이 왼쪽 날개에 자리해 손흥민, 케인, 알리와 함께 공격을 이끄는 그림을 전망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진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레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곡,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